+

金지사 "보성을 남해안 르네상스 시대 중심지로"

전남도,보성군 정책비전투어

글로벌녹차도시 등 10대 미래비전 제시 미국 '보성정원' 조성 5억원 지원 약속

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"100년 전 번성했던 보성을 '남해안르네상스 시대의 중심'으로 빛나 게 하겠다"고 강조했다.

김 지사는 이날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성군 정책비전투어에서 "보성은 전남을 넘어 남해안권 중심도시로 도약할만한 충분한 가능 성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"며 이같이 밝혔다.

정책비전투어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철우 보성군수, 김재철 전남도의원, 김경열 보성군의 회 의장, 군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.

김철우 군수는 환영사에서 "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일정 중 필라델피아 서 재필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이후 보성군과 미국 필라델피아 미디어시와의 보성 정원을 만드는 일이 구체화되고 있다"며 "이 사업을 전남도와 보성군이 함께 협의해 추진하고 싶다. 서재필 박 사가 태어난 보성의 이름이 새겨진 정원이 전남 도와 함께 세계 속에 우뚝 서길 바란다"고 지원 을 요청했다.

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"지난달 보성군민이 손꼽아 기다린 목포-보성선 철도가 무려 23년 만에 개통됐다"며 "이런 교통 인프라 등을 통해 보성을 전국 최고 핫플레이스로 만들겠다"고 약 속했다.

전남연구원은 이날 '생동하는 푸른 미래, 자연과 삶을 연결하는 땅, 보성'을 슬로건으로 미래 핵심 10대 비전을 제시했다.

10대 비전은 ▲글로벌 녹차도시 ▲천혜의 갯벌 벌교, 6차 산업으로 활력 창출 ▲율포, 글로벌복합해양관광 허브로 ▲건강한 숲과 정원이 있는 웰니스 관광지 ▲간이역 '무한 즐거움 이음' 프로젝트 ▲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보성농업 ▲주민참여·주민소득형 에너지 전환 ▲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숲 녹색 회복 ▲지키고, 계승하고, 누리는 보물(寶) 가득한 성(城) ▲남해안 교통의 요충지, 또 오고 싶은 보성이다.

이어진 정책 토론은 보성군민, 김영록 지사, 전 남도 실·국장들 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.

군민들은 벌교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연계 가족친화형 놀이터 '하늘마당 안심쉼터' 조성, 미국 서재필정원 조성, 문덕 서재필기념공원 전시관 보완,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원,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확대, 광주송정-순천 철 도 건설사업 이행, K-Tea 보성말차 가공시설 현 대화 지원,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고효율 인버터 지원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건의를 쏟아냈다.

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"미국 필라델피아 '보성정원'(서재필정원) 조성을 위해 전남도에 서 총괄 추진하고 예산 5억원 지원과 함께 서재 필기념공원 전시관 보완 역시 이뤄지도록 하겠 다"며 "가족친화형 놀이터 '하늘마당 안심쉼터' 조성에도 5억원을 지원하겠다"고 약속했다.

또한 K-Tea 보성말차 가공시설 현대화에 대해서도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.

이와 함께 김 지사는 "광주송정-순천 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기본·실시설계 단계"라며 "순천시 도심 구간 지하화 통과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 기간이 필요한데,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재조사 기간 단축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"고답했다. /김재정기자



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 보성군청에서 열린 '보성군 정책비전 투어'에 참석해 토론을 주재하고 미래 비전·정책 현안 등 지역 발전 의견·제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. 〈전남도 제공〉

김영록 지사,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또 1위

11개월 연속…민선 8기 33개월 선두

김영록 전남지사가 전국 17개 시·도지사를 대 상으로 한 직무수행평가에서 또 다시 1위를 차 지했다.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갔다.

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9월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 따르면 김 영록 지사는 긍정 평가 54.9%로 1위에 이름을 올

렸다. 8월 긍정 평가 54.6%보다 0.3%p 상승한 수

김지사는 민선8기 출범이후총33개월동안1 위를기록했다.

김 지사에 이어 2위 김두겸 울산시장 (52.3%), 3 위 김관영 전북지사 (52.1%), 4위 이철우 경북지 사 (49.3%), 5위 김진태 강원지사 (48.6%), 6위 최 민호 세종시장 (48.0%), 7위 유정복 인천시장 (47 .9%), 8위 김태흠 충남지사 (45.5%), 9위 김동연 경기지사 (45.0%), 10위 박완수 경남지사 (44.5%), 11위 이장우 대전시장 (44.4%), 12위 오세훈 서울 시장 (42.8%) 순이다.

강기정 광주시장은 순위 공개 범위인 12위 밖으로 밀려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. 리얼미터 는 12위 이내 상위권만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.

이번 조사는 유·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8월29일-9월1일과 9월28일-9월30일 전 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천600명(시·도별 800 명)을 대상으로 실시했다. 표본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 ±3.5%p, 응답률은 3.4%다. /김재정기자

시의회, 'AI창의문화공간' 국비 10억 전액 삭감

행자위 "세부 사업계획 불분명" 지적 향후 예결위 심사서 부활 여부 주목

광주시 '인공지능(AI) 기반 창의문화복합공 간 조성사업' 국비 예산이 광주시의회 상임위 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.

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광주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'AI 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' 국비예산 10억원을 전액 감액했다.

사업의 구체성과 추진 취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.

이 사업은 광주 동구 충장상상큐브 1-3층을 리모델링해 충장축제 체험·브랜드 공간(1층), 문화복합공간(2층), 식음료 판매시설(3층) 등 AI 기반체험·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.

이귀순 의원은 예산 심사 질의에서 "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된 건물을 2025년 아시아문화전당 연계 특화(아특)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목적이 바뀌었다"며 "콘텐츠나 운영 방안 없이 인테리어 비용만 편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"고 지적했다.

이어 이 의원은 "문화 사업이 집중된 동구에 서 아시아 음식문화거리처럼 예산만 투입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"며 운영 주체·위탁 방식·수익 구조 등에 대한 세부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.

서임석 의원도 "AI 기반 복합공간이라고 하지만 AI와 연관성이 모호하고 대상층이나 접 근성도 고려되지 않았다"고 비판했다.

이번 삭감 결정은 단순한 사업 조정 수준을 넘어 국비 예산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 차원이 라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.

이에 대해 문진영 광주시 관광도시과장은 "사업 운영 주체가 동구이다 보니 세부 사업 계 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"며 "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예결위에서 부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 /변은진기자

정준호 "광주시-SRF 갈등 방치 안돼"

계약 해지·손해발생액 부분 협상 제시

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가연성폐기물연료 화(SRF) 시설운영손실배상금 중재갈등이장기 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 원(광주북구갑)이 직접 중재 의사를 밝혔다.

정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 "SRF 갈등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주민 환경 안전 및 기업과 지역의 신뢰 회복 문제"라며 "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제가 나서 대화의 문을 열고 실질적중재에 착수하겠다"고 강조했다.

이어 정 의원은 "포스코 측의 손실 배상금 637 억원 주장은 사실 관계에 부합하고, 광주시가 2 천100억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 장도 이해된다"며 "양측의 주장을 모두 존중하 되 갈등이 장기화되면 시민 피해만 커질 것"이 라고 지적했다.

또한 그는 과거 갈등 해결 사례를 언급한 뒤 "저는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아닌 해결하는 정치를 해왔다. 이번에도 행동으로 증명하겠다"고 약속했다.

그러면서 정 의원은 구체적인 해법으로 ▲운영 계약 해지 후 기손해발생액 부분 협상 진행 ▲포스코는 중재심판 취하하되 이미 지출된 중 재심판비용은 광주시에서 부담 ▲포스코는 중 재심판취하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신규 사업자에게 이관 시 시설보수 자부담 등을 제시했다. /변은진기자



+